

성공적인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유럽 2020 발전전략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숙^{1*}

¹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2020 EU Developmen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Jin Suk Kim^{1*}

¹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Namseoul University

요약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가치사슬이 서로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특히 R&D 분야에서의 국제기술협력은 하나의 기업혁신 전략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협력 연구에 관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은 산업기술진보가 가까운 장래에 고용을 창출한다면 과학기술연구는 먼 장래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과학기술연구 추세가 미래 유럽의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020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이 발전전략에 토대를 두고 EU회원국들은 기술협력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2020전략에 토대를 두고 우리 정부가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분야에서의 정책적 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논문 연구의 결과로는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FP정책에서 EU 2020발전전략에 토대를 두고 EU 8차 정책과 연관지어서 정책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Abstract The value chain of a country is achieved i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R&D is known to be one of the innovation strategies. But the efforts on research in th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is lacking in Korea. Europe expects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industrial area in order to create employment in the near future but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should also create this endeavor for the future. EU recognizes that the current trend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future job creations in Europe. Therefore EU has developed the 2020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the technological cooperation policy especially on the basis of the EU's 2020 strategy.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is paper, our government will pursue future EU FP 8 policy to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EU's 2020 strategy.

Key words : Europe 2020,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2020 strategy

1. 서론

21세기가 어느 때 보다도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세기(the centu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될 것이다. EU는 특히 EU 역내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촉진에 정책적 초점을 두다. 이에 EU는 과학기술인력 면에서도 산업인력 매1,000명당 유럽이 2.5명으로 미국 6.7명, 일본 6명에 비해 열세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1].

EU는 산업기술진보가 가까운 장래에 고용을 창출한다면 과학기술연구는 먼 장래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열세인 현재의 과학기술연구 추세가 미래 유럽의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아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0전략을 발표하여 세계에서 최고의 지식사회가 되기를 겨냥하고 있다[3].

*Corresponding Author : Jin Suk Kim (Namseoul University)

Tel: +82-10-6321-7233 email: mktjskim@nsu.ac.kr

Received August 31, 2012 Revised (1st October 4, 2012, 2nd October 22, 2012) Accepted December 6,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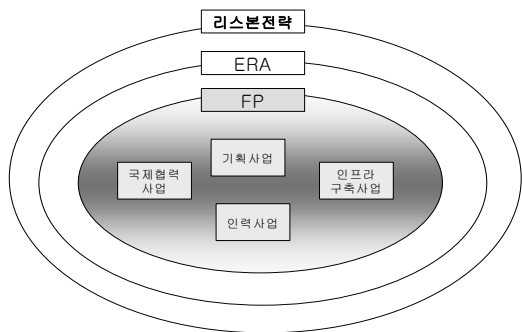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EU의 2020전략을 살펴보고 한국 국제 기술협력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제 2장에서는 EU 2020전략의 배경 및 개요를 알아 보고 제 3장에서 EU 2020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국제기술협력 정책 관점에서 살펴본 EU 2020전략을 서술하였으며 제 5장은 결론으로 되어있다.

2. EU의 국제기술협력 정책

EU의 일반적인 국제기술협력 정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서 설명할 수 있다: EU FP(Framework Program) 그리고 EUREKA. 아래에서는 EU FP와 EUREK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1 EU의 국제기술협력 일반 정책

EU는 27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역내 회원국 자체 기술력 강화 및 EU차원에서의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EU는 회원국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EU차원에서 회원국 간의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등을 중점으로 EU기술 혁신정책이 수립되었다. EU의 기술 혁신정책 체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기간별로도 상이하여 간단히 요약하기 어렵다. 그러나 EU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모태는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열린 EU정상 회담에서 다룬 리스본 전략이다. 이 리스본 전략에 의하면 EU는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구축하였으며 그 체계는 대략 [그림 1]과 같이 유럽연구시대 형성(ERA)을 목표로 종합프로그램 FP를 5년 단위로 작성될 수 있고 이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4가지 분야로 특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참고 [그림 1])[4].



[Fig. 1] EU R&D Systems

EU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은 지금까지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지식창출에의 투자증대,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연구 강화,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투자증대, 유럽의 과학기술연구조직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개별회원국차원이 아닌 EU차원에서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하여 유럽을 ‘하나의 연구지대’로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은 20세기말에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였는데, EU는 향후 경제·사회의 발전이 지식의 생산·취득 및 사용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에는 신제품을 생산해 내는 생산과정, 시장조사 및 기술이 경제성장, 산업경쟁력과 고용창출 등에 있어서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유럽기업들이 신제품을 생산하는 등 현대화되면, 이것이 고용의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고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연구는 정부정책의 추진 및 집행과정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건강, 위생 및 원전의 안전 등 분야에서 정부정책의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은 실증적인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유럽은 기본과학기술연구(예: 분자생물학 및 면역학 연구 분야)가 대학, 연구기관 회사 및 개인 컨소시엄 등에 의해 수행되어 오면서 큰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유럽은 미국과 일본이 주요기초 과학기술연구소들이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연구 노력을 배가하여 온 것에 반하여, 최근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여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의 민간부문은 유럽과학기술연구와 관련한 소요 재원의 1/2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연구 활동의 2/3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활동은 그동안 침체된 유럽의 과학기술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유럽경제의 세계화로 모든 산업 및 기술 간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럽기업들도 국제적 규모의 과학연구 및 발전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일부 민간연구기관의 과학기술연구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유럽민간부문의 과학기술연구투자(특히 첨단산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또한 유럽금융시장은 지식산업의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유럽의 과학기술연구조직의 연계강화: EU 조약은 EU가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EU회원국 간 협조를 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과학기술연구 활동의 기본적 체계는 국가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의 공동과학기술연구는 EU 연간 총예산의 5.4%

가 배분되는 EU의 과학기술연구기본계획인 FP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기본계획에 의한 공동연구방식은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이기는 하나 유럽의 과학기술연구를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여전히 그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유럽의 과학기술연구는 회원국과 EU차원의 노력을 단순히 합산한 형태에 불과하여, 각국별로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노력과 과학기술조직체제가 분산, 고립, 구획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 간 규제 및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불균형 문제 등도 노정되어 유럽이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의 과학기술연구 분야는 EU의 회원국 간 연계 미흡과 부조화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개선이 불가피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EU는 과학기술연구가 개별회원국별, EU 또는 국제적인 협력조직 등에 의해 취해지는 다양한 조치를 통합된 접근방법에 의해서 통합하여 추진해갈 계획이다.

특히 EU는 유럽과학연구조직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적절한 자원배분을 이룩하고 정보부족과 연구인력 등의 불충분한 이동성에 기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주요부문에서의 지식창출에 대한 일정목표를 설정해갈 계획이다. EU는 지식 및 기술에 있어 향후 유럽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기반위에서 수립·시행되는 유럽의 현실적인 과학기술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FP를 발표하였으며 현재 총 7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3. EU 2020전략 개요 및 내용

3.1 2020전략 개요

유럽은 경제적 구조가 동유럽 통합 및 그리스 금융위기 등의 정책과 맞물려 구조적 위기가 도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세계가 기술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특히 자원고갈의 위협을 받는 장기간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실업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특히 미국과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만연되고 있으며 EU의 FP에 기반을 둔 유럽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럽 2020전략은 세부적으로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는 다시 각 분야별 목표와 EU차원의 계획과 개별회원국 차원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3-5]. 유럽 2020 전략에는 기본 3대 목표가 있다. 먼저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을 위한 영리한 성장과 거기에 맞는 경쟁력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이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높은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지역적 융합을 통한 포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러한 3대 목표에 기반을 두고 구체적인 달성목표는 우선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의 75%의 고용창출이 구체적인 목표이며 또한 EU는 지금까지 EU전체의 GDP의 2.5%대에 머무르고 있는 R&D투자를 3%까지 상승시키고자 한다. 특히 인력정책으로는 조기학업 포기의 비율을 10%아래로 낮추어서 3차 교육까지 이수하는 젊은 세대의 비율을 최서 40%까지 향상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의 위기에 있는 인원을 2천만 명이내로 감소코자 한다.

3.2 2020전략 내용

3.2.1 분야별 주요계획

7개 분야별 주요계획은 혁신적 연합, 청년들에 있어서의 변화 유럽의 디지털 계획, 자원 효율적 유럽, 글로벌화를 위한 산업정책, 새로운 기술과 직업을 위한 계획 그리고 빈곤에 관한 유럽의 플랫폼으로 되어있다. 또한 기술 관련 분야는 유럽의 디지털 계획과 혁신적 연합 부문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유럽 내 고용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더 좋은 사회 구현을 이상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각 액션플랜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EU차원과 회원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1.1.1 청년들에 있어서의 변화

청년들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목표로서 유럽의 수준 높은 교육기관에 대한 국제적 매력의 증진과 교육적 성과의 향상에 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종의 증진을 통해서 EU에서의 교육의 전반적인 레벨향상과 젊은 사람들의 고용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EU차원에서 집행하는 정책으로는 Erasmus, Mundus, Tempus and Marie Curie 프로그램 같이 국가적으로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동성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3.2.1.2 자원 효율적 유럽

자원 효율적 유럽에 관한 액션플랜의 목표로는 자원

효율적이고 저 공해 경제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지원하는 것과 경제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지원하는 것 및 경제성장과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이산화탄소발생을 감소시키는 것과 에너지 안전을 더 많이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있다.

EU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지역개발, 구조적 펀드, R&D 프로그램 그리고 자본기구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또한 각 회원국별로는 환경적으로 해가 되는 보조금들을 폐지하고 영리하고 개선된 운송에너지 기반구조 개발 및 전체적인 EU 운송시스템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기반구조 프로젝트의 체계화된 구현과 교통 혼잡과 탄소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지역에 집중하는 것 및 건물건축 표준과 규제의 규정 등에 관한 정책 등으로 되어있다.

3.2.1.3 글로벌화를 위한 산업정책

액션플랜의 목표는 경제위기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산업과 중소기업 등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대화된 산업정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것과 유럽의 제조,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에 세계화와 환경 친화적 경제로의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EU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전달을 증진하고 범 유럽차원에서 뛰어나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산업기반을 개발하고 유지하게 할 수 있는 하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영리한 규제, 현대화된 공적 조달, 표준 확립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증진하고 미래지향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며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는 생산방법과 기술을 지향하게 하는 싱글마켓과 국제시장에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EU를 통한 운영과 실행 네트워크를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유럽의 여행 산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증진과 서비스와 생산 분야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의 재검토 및 노동시장에서의 장기근속과 소비자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사회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히 회원국들 각 국가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들을 개선하며 또한 회사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감소하고 사업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또한 타 산업분야간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3.2.1.4 새로운 기술과 직업을 위한 계획

액션플랜의 목표로 현대화된 노동시장 창출과 노동생산성증대, 새로운 기술습득지원으로 비용감소와 현재와

미래의 노동환경에 적응하여 잠재적인 경력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U차원에서 실행하는 정책으로는 유연한 노동환경 계획의 2차 단계 실행, 노동시간 근무자의 배치 등의 작업 패턴의 개선과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영리한 규제마련을 위한 법적인 프로임 워크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EU내의 노동이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 및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역량 강화하는 것과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트레이닝에서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유럽인의 기술력과 경쟁 및 직업교육 프레임워크 같은 교육을 위한 정책적 도구의 제공을 통한 경쟁력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별로는 유연안정성을 위한 국가적 연결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금과 이익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것 및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정책 등이다. 특히 노령인구에 대해서 보다 활동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질 수 있는 정책수립과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고 사회적 대화가 효과적인 실현이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것이 있다. 또한 직업에서 모든 국민들이 일과 교육/트레이닝에 대해서 세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3.2.2 기타: 빈곤에 관한 유럽의 플랫폼

액션플랜의 목표는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지역적 응집을 보장하는 것이다.

3.3 기술관련 2개 전략

기술관련 분야 2020전략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혁신적 연합과 유럽의 디지털 계획 분야이다.

3.3.1 혁신적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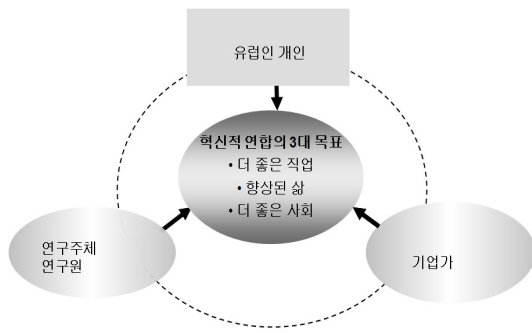
혁신적 연합의 목표로는 우선 사회에 직면한 과제에 대한 R&D와 혁신정책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이다. 또한 여기와 관련된 주제들은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효율성, 건강 및 인구변화에 관한 것으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연합의 3대 목표는 더 많은 직업(more jobs), 향상된 삶(improved lives) 그리고 더 좋은 사회(better society)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EU차원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운송 및 기후변화와 자원효율성, 건강, 노화, 환경 친화적인 제품 생산방법과 토지 운영 같은 도전 과제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연구계획을 세우고, 회원국들 및 지역 간의 협력 프로그램

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혁신적 연합의 의미는 크게 3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유럽개인에게 주는 의미, 기업가 그리고 연구원이다(참고 [그림 2]).

유럽 개인들에 있어서의 혁신적 연합의 의미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영리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적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사회혁신으로 인한 자율적 시민이 되는 것 그리고 더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방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 끝으로 환경 친화적인 유럽을 만드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Fig. 2] The goal of an innovative coalition

기업가들에게 있어서 혁신적 연합의 의미는 우선 자본과 연관되어서 보다 향상된 접근성, 혁신적 규정과 규칙을 가질 수 있는 것, 가속화된 상호 이용 가능한 표준조기 정착, 보다 저렴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하는 것, 공공부분에서의 혁신적인 지원, EU기업과 경쟁력 있는 분야의 혁신적인 파트너십 마련, EU에서의 연구와 혁신 프로그램에 손쉬운 참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연구원과 연관시켜서 혁신적 연합의 의미는 우선 연구원들을 위한 매력적인 경력들, 높은 표준 트레이닝, 보다 쉬운 국가 간 이동성, 연구결과에 대해서 더 개방적인 접근가능, 향상된 공사간 협력강화 그리고 EU에서의 연구와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쉬운 참여가능 등이다.

EU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2011년까지 교육과 기술개발에 있어서 우수성을 증진토록 하였다. 즉 연구자들에게 그들의 국가적 R&D 목표에 맞도록 충분히 트레이닝하고 매력적인 고용환경을 향상시키고자한다. 또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E-스킬 증진을 계획하고 있다.

EU 당국은 EU의 자본기구들이 혁신연합의 우선사항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고무하고 있다. 즉 미래의 EU연구와 혁신프로그램들을 유럽 2020목적들과 특히 혁신연합에 초점을 맞추고 하 한다. 미래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도

전들에 중점이 맞춰있고, 자본기구들을 간소화하고 제어 기반 신뢰기반 시스템 사이의 균형을 향상시켜서 접근을 단순화코자 하고 있다. 정책 설립을 위해 과학기반을 강화하고 European Forum on Forward Looking Activities를 개설하였다. 유럽에서의 혁신정부의 모델로써 EIT (European Institute for Innovation Agenda)을 향상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혁신적 회사들을 위해서 보다 용이한 자본지원 접근이 향상하는 것으로써 개인자본의 증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본 기구들을 개발하고 개시한다. 각 나라에서의 벤처 캐피탈들이 자유롭게 EU에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국가 간의 자본투자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세금정책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법제정을 가능토록 한다. 위원회는 적합한 투자자를 범국가적으로 혁신적인 기업과의 연결을 주선하고 강화하여 재정문제에 봉착한 소규모의 회사들을 도움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국가보조 연구개발과 혁신프레임워크에 대한 중간검토를 수행한다.

싱글혁신마켓의 창조를 위해서 2014년까지 EU특허의 언어체계와 정착에 대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핵심 분야에서의 규제력을 지닌 프레임워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환경 혁신적인 분야와 유러피언 혁신 파트너십 간의 연결을 지원한다. 상호정보이용가능성과 빠르게 변하는 국제시장에서의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표준 정착문제를 현대화하고 가속 하도록 한다. 회원국들은 EU에서의 혁신제품들과 서비스, 물품들에 대한 거래에 최소 연간 100억 유로의 예산의 투입을 위한 전용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환경 혁신에 관한 액션플랜을 마련해야한다.

유럽의 창조적 잠재력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자본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러피언 디자인 리더십 보드와 유러피언 창조적 산업 간의 연합을 창출하며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의해 투자 받은 일반 출판물에 대한 개방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협력연구와 지식의 배포를 가능하게 하며 자본 투자를 위한 특허와 라이선스를 위한 유러피언 지식마켓을 개발한다. 떠 나아가 법적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및 경쟁 정책의 역할을 검사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국가 간 혁신이익의 확산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연구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구조적 자본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이러한 것들에 관한 국가적 시스템을 확충토록 한다. 또한 국가 간 프로젝트의 균형을 조정한다. 혁신분야에 있어서의 투자가 증대된 2013년 이후의 프로임 워크의 체계화된 자본 구조를 준비토록 한다.

사회이익의 증대로 우선 유러피언 사회 혁신계획을 개

시 한다. 또한 ESF(European Social Fund)를 통한 사회혁신을 증대토록 한다. 사회혁신은 유러피언 사회 자본 프로그램의 차세대 핵심주제가 될 예정이다. 공공분야, 사회혁신분야와 유러피언 공공 분야 혁신을 위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등이다. 더 나아가 모든 직업분야에 어떻게 지식경제를 확산할 수 있는지 사회적 파트너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둘째구 실현을 위한 역량통합으로서 유러피언 혁신 파트너십을 증대토록 한다. 외부국가와의 정책 기준마련을 위해서 선도적 연구자들이 유럽에서 일하는 것을 보장하고 충분한 3국의 훌륭한 연구원들이 유럽에 거주하는 것을 보장한다. EU와 그 멤버국은 제3국과의 현재 공통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적 협력을 추구하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 ICT 기본구조를 포함한 연구기반시설들의 개발이 국제적 파트너의 수준에 이르게 하며, 비용, 복잡성 및 상호정보이용에 대한 연구들이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발될 수 있게 한다. 연구와 혁신 시스템의 수행을 위해서 멤버국들 간의 자가 평가와 핵심도전의 구분, 그들 국가적 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써 핵심적인 개혁들을 시행코자 한다. 끝으로 과점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적 회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연구혁신연합의 스코어보드를 사용하여 혁신수행에의 전체적인 과정을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찰토록 한다.

3.3.2 유럽의 디지털 계획

유럽의 디지털 계획에 관한 액션플랜의 목표는 2013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브로드 밴드 급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2020년까지는 30Mbps 이상의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게 하면 유럽 가정의 50%이상에 100Mbps이상의 인터넷 속도를 보급하는 것에 있다.

4. 국제기술협력과 2020 발전전략

EU 2020 발전전략을 한국정부가 국제기술협력 정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FP와 EUREKA 2가지 들 수 있다. 우선 EU의 FP를 통한활용방안과 EUREKA 활용방안이 있다. FP 7차는 2011년 2017-2013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EU FP 7차 기간이다. FP의 일반적인 특징은 특정 프로젝트 테마를 EU가 공식적으로 지정해 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EU FP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학관계자들은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테마는 EU가 이미 지정한 테마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구기관 및 개인이 EU FP를 통한 국제기술 협력을 실행코자 할 경우 지정테마가 맞아야 하고 또한 파트너도 맞아야 한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점에서 EU 2020발전전략에 토대를 두고 EU FP 8차와 연관 지어서 정책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EU 8차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며 현재 EU 회원국 간의 여러 방면으로 효율적인 FP실행이 될 수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정부는 비회원국으로서 EU 2020발전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서 EU FP 8차에 대한 정책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회원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통해서 FP 8차에 대비 정책을 설립할 수 있다.

그 밖에 EUREKA 활용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EUREKA는 FP와 달리 bottom to up 원칙으로써 산업체 등이 연구 프로젝트 테마를 설정하여 EUREKA에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EUREKA의 준회원국가 이다. 즉 회원국가와 마찬가지로 EUREKA의 프로젝트를 실행코자 할 경우, 1개의 회원국가와 조인하면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정부는 EU의 2020전략에 토대를 두고 보다 구체적인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EUREKA 주요회원국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테마를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테마에 대해서 EUREKA는 EU 자신을 위해서도 EU집행위가 실행하는 FP에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지원하는데 적극적이 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유럽연합의 2020전략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주요목표와 7개 분야별 주요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입장에서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분야는 이러한 목표를 토대에 두고 구체적으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될 FP8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EU 2020전략을 통해서 EUREKA 준회원국인 우리나라는 EU FP 8차에서 실행할 수 없는 공동연구 테마 등에 대해서는 EUREKA를 통해서 국제기술협력을 실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EU 2020전략을 다루었다는 점과 국제기술협력 정책 방안에서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향후 보다 깊이 있게 기술협력 분야 등과 국제기술협력을 실행하였을 경우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1] A Worldwide Vision for European Research, EU Commission, 2010..
- [2] Chesbrough, H.W(2006).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Boston: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 [3] Europe 2020 Strategy(2010), EUROPE 2020 "A European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European Commission, 3.3. 2010. Brussels.
- [4] EU Regional Policy - Key for achieving Union's 2020 sustainable growth goals, 2.27.2011. Brussels.
- [5] Technopolis Group(2005), Bilateral international R&D cooperation polices of the EU Member staates.

김 진 속(Jin-Suk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독일 Münster 대학교 경영학(Dipmom 석사)
- 1994년 9월 ~ 1997년 2월 : 독일 Trier 대학교 경영학 박사 (Dr. rer. pol.)
- 2000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국제기술협력, EU, 독일, 국제경영전략, 국제마케팅, R&D, 기술경영, 산업재마케팅 등